

내 차를 망치는 사소한 행동

운전자마다 내 차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는 관리법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의외로 자동차 부품의 고장과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관리법도 있다. PLAY KIA(play.kia.com)가 오히려 내 차에 독이 되는 관리법 또는 자동차에 관한 사소한 행동을 소개했다.

■ 자동차를 놀라게 하는 3급



‘자동차를 아끼고 싶다면 3급을 피하라’는 말이 있다. 3급이란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을 뜻하는데, 이런 급격한 조작은 서서히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보다 연료소모가 훨씬 클 뿐아

니라 엔진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물론 너무 느리게 출발할 때도 연료 소비량이 늘어난다. 출발 후 약 15마일/h까지는 천천히 가속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엔진 수명까지 늘릴 수 있다.

급제동 역시 내 차를 망치는 나쁜 방법 중 하나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습관에 의한 잦은 급제동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를 빨리 닳게 할 뿐만 아니라 디스크 변형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후미 추돌 사고를 유발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급제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지나친 워밍업



잠에서 덜 깬 때 몸을 격하게 움직이면 몸에 무리가 가듯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특히 추운 날에는 자동차도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바로 엔진 예열이다. 특히,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종과 새 차의 경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예열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친 예열은 엔진에 무리를 주고 엔진오일의 수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연료 낭비와 배기가스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1분, 겨울에는 2-3분 정도 적당한 시간 동안만 예열하는 것이 좋다.

■ 뜯지 않는 새 차의 비닐과 스티커

오랫동안 새 차 기본을 내고 싶거나 차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신차에 붙어 있는 비닐을 벗기지 않는 경우



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새 차 비닐과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는 행동은 운전자와 차량에 모두 나쁜 영향을 준다. 시트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발생한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

아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또한 비닐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는 전자 기능에 영향을 끼쳐 오작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신차에 붙어 있는 외관의 스폰지와 스티커 등도 떼는 것이 좋다. 스폰지의 접착면이 오래되면 늘어붙어 쉽게 떼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도색의 변색을 유발하기도 해 오히려 외관을 망칠 수 있다.

■ 엔진룸 고압 세차



차를 구석구석 세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엔진룸 세차다. 엔진 내부 부품은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세차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압수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고압수의 센 압력으로 부품 연결부위가 손상될 수 있고 전기회로나 에어 덕트 등에 물이 유입되면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엔진룸 내부를 청소할 때는 형광과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직접 손으로 닦는 방식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

■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타이어 고무와 타이어 내부의 공기는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큰 여름과 겨울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사계절 내내 타이어를 점검하지 않거나 공기압을 신경 쓰지 않고 달린다면 큰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의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를 통해 공기압을 자주 확인하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습관이 무척 중요하다.

■ 자동차는 타는 것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수록 차를 오래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를 오래 세워 두기만 하면 오히려 크고 작은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자동차를 자주 운행하지 않으면 엔진 오일 안의 오일이 가라앉아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고 변속기는 물론 각종 부품이 뻑뻑해지거나 부식될 수 있다. 만약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소 주 1회 이상은 시동을 걸어 워밍업하는 게 좋다.

■ 엔진오일 관리



자동차 엔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엔진오일 역시 기본적인 자동차 점검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다. 엔진오일은 엔진 부품이 마모되지 않도록 돕고 냉각 작용 및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밀봉 작용을 하는 등 엔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기에 따라 잊지 말고 교체해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엔진오일을 사용하면 오히려 엔진 성능이 떨어지거나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너무 잦은 엔진오일 교체도 좋지 않은 관리법이다. 주행 조건에 따라 일반 주기보다 일찍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엔진 오일을 너무 자주 교체하면 오일이 최적 효율을 발휘하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오일로 교체돼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주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

■ 주유 습관



연료 경고등은 일반적으로 30마일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남았을 때 점등된다. 직분사 엔진의 경우 연료가 부족하면 노즐이 손상되기도 하고,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스타터 모터와 배터리에도 부담이 된다.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 연료가 부족하면 연료 라인에 공기가 들어가 연료를 분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사진= play.kia.com>

복사기 무료 1st month FREE

복사기 렌탈! 판매! 서비스!

B&W Rent \$75~
Color Rent \$100~

FBM RENT PROGRAM

- FREE Copier, Finisher
- FREE Toner, Part, Labor
- FREE Network, Print, Scan
- Flexible Program ▪ Fast Service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E-mail : fbm9044@hotmail.com / www.fbmcopiers.com

800)582-3321

562)802-9044